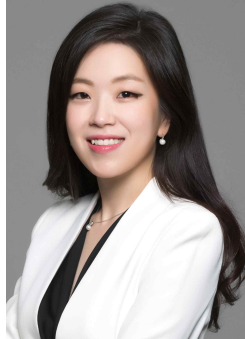


남부고시 나래국어 이유진 교수

2019 국가직 7급 국어(다책영) 해설

現) 남부고시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前)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강남중로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홍익대학교 /
웅지세무대학



집필) 이유진 우월한 문법규정, 박문각
이유진 우월한 독해, 박문각
이유진 우월한 어휘한자, 박문각
이유진 국어 독해알고리즘, 헤르메스
이유진 문법의 단권화, 고시동네
이유진 국어 올인원, 고시동네
이유진 나래국어 기출300제,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실전300제, 박문각
메가북스 EBS 분석노트
디딤돌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디딤돌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검토) EBS 수능특강 사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국문학과 국사의 입맞춤,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연재

★ 오답 해설:

- ① ‘말씀’은 상대방의 말을 높일 때 높임의 의도로도 쓰이고, 나의 말을 낮출 때 겸양의 의도로도 쓰인다.
- ③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로 고쳐 써야 옳다. ‘저희’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말할 때 쓰는 단어이므로 ‘저희 나라’라고 하면 말하는 사람과 아울러 그 사람이 속한 ‘나라’도 낮추는 것이다. 이것은 지나친 겸손이므로 ‘우리나라’라고 표현해야 한다.
- * ‘나라’, ‘저레’는 절대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낮춤말이 아닌 높임말이 사용된다.
- ④ 객체인 ‘만 원’ 또는 ‘특정 상품’을 높이는 것은 고객 응대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높임 필요가 없는 대상을 과도하게 높이면 오히려 어색한 느낌을 주므로, 높임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문 1.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에서의 ‘말씀’은 ‘말’을 높여 이르는 단어이므로 ‘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혜정아,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진짜 소중한 여기셨어.”에서의 ‘당신’은 3인칭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다.
- ③ 남에게 말할 때는 자기와 관계된 부분을 낮추어 ‘저희 학과’, ‘저희 학교’, ‘저희 회사’, ‘저희 나라’ 등과 같이 표현해야 한다.
- ④ 요즘은 흔히 들을 수 있는 “그건 만 원이세요.”, “품절이 습니다.”에서의 ‘-세요’, ‘-습니다’는 객체를 높이는 새로운 표현 방식이다.

★ 정답: ② - 이론 문법 - 높임법과 언어 예절

★ 정답 해설:

제시된 발화에서 ‘할아버지’를 이르는 ‘당신’은 3인칭 재귀 대명사 ‘자기’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재귀 대명사는 앞에 한 번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쓰이는 인칭 대명사를 말한다.

참고) 인칭 대명사(우월한 문법·규정 p. 103)

분류	내용
1인칭	나, 저, 우리, 저희, 소인, 점, 본관, 본인 등
2인칭	너, 자네, 그대, 당신, 너희, 여러분, 댁, 귀관 등
3인칭	그, 이분, 그분, 저분, 이이, 그이, 저이 등
미지칭 (未知稱)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에 묻는 인칭 대명사, 주로 의문문에 쓰인다. 예)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정칭 (不定稱)	특정 인물을 가리키지 않는 인칭 대명사 예) 아직 아무도 안 왔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벌을 받는다.
재귀칭 (再歸稱)	앞에 한 번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에 쓰이는 인칭 대명사(= 재귀 대명사)로, 국어에서는 대개 3인칭 주어로 쓰인 명사나 명사구를 다시 가리키는 데에 쓰인다. 예) 그는 저만 잘났단다, 그들은 저희만 잘났단다,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당신의 차를 아끼신다.

문 2. 밑줄 친 부분이 ㉠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결합된 것을 파생어라 한다. 파생 접사는 그 위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누는데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지만, ㉠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 ① 그곳은 낚시질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였다.
- ② 옥수수 알이 크기에는 안 좋은 날씨이다.
- ③ 세 자매가 정답게 앉아 있다.
- ④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 정답: ③ - 이론 문법 - 형태론 - 접사의 기능

★ 정답 해설:

‘정(情)’ + ‘-답다’: 어근 ‘정’은 명사이며 ‘성정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인 ‘-답다’가 결합되어 형용사로 바뀌었다.

참고) 어근의 품사를 바꾸어 주는 지배적 접사

(우월한 문법·규정 p. 98)

분류	접미사	예
명사와 접미사	-음/-이	민음, 죽음, 웃음, 곁음 / 길이, 높이, 먹이, 벌이
	-기	끓기, 달리기, 돌려짓기, 모내기, 사제기, 줄넘기, 크기
	-개	오줌싸개, 코흘리개, 날개, 텃개, 지우개
	-애	마개(막- + -애), 열개(열- + -애), 노래(놀- + -애)
	-게	집게, 지게
	-어지	나머지(남- + -어지)
	-엄	무덤(묻- + -엄), 주검(죽- + -엄)
동사와 접미사	-움	마춤(맞- + -움), 지붕(집 + -움)
	-하다	공부하다, 생각하다, 밥하다, 사랑하다, 절하다, 빨래하다
	사동의 형태소	먹이다, 넓히다, 물리다, 옮기다
	-거리다/ -대다	까불거리다, 반짝거리다, 망설거리다, 출렁거리다/ 까불대다, 반짝대다, 망설대다, 출렁대다 ※ ‘-대다’와 ‘-거리다’는 모두 널리 쓰이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이다	끄덕이다, 망설이다, 반짝이다, 속삭이다, 움직이다, 출렁이다

분류	접미사	예
형용사와 접미사	-하다	건강하다, 순수하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행복하다
	-스럽다	복스럽다, 걱정스럽다, 자랑스럽다
	-답다	꽃답다, 남자답다, 사람답다, 정답다, 참답다, 선생님답다
	-롭다	명예롭다, 신비롭다, 자유롭다, 풍요롭다, 향기롭다
	-업-	미답다(밑- + -업- + -다)
	-브-	미쁘다(밑- + -브- + -다), 아프다(알- + -브- + -다), 슬프다(슬- + -브- + -다)
	-읍-	우습다(웃- + -읍- + -다)
부사와 접미사	-이/-히	많이, 같이, 높이, 깊잡이, 나날이, 다달이/ 조용히, 무사히, 나란히, 영원히
	-로	날로, 새로, 주로, 진실로
	-내	봄내, 여름내, 저녁내, 마침내, 끝내
	-오/-우/ -아	비로소(비롯- + -오), 도로(돌- + -오) / 너무(넘- + -우), 마주 (맞- + -우) / 차마(참- + -아)
	-껏	정성껏, 마음껏
	-금	하얏금
관형사와 접미사	-적	국가적, 기술적, 문화적, 비교적, 사교적, 일반적, 전국적
	-까짓	네까짓, 이까짓, 그까짓, 저까짓

★ 오답 해설:

① ‘남시’ + ‘-질’: 어근 ‘남시’는 명사이며 ‘-질’은 도구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명사와 접미사이다. 그러므로 품사를 바꾸지 않았다.

②, ④ **참고) (우월한 문법·규정 p. 130)**

②의 어근 ‘크-’는 동사 ‘크다’의 어간이고 ④의 어근 ‘보-’는 동사 ‘보다’의 어간이다. 밑줄 친 ‘-기’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명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명사형 전성 어미’이다. 용언은 전성 어미와 결합하더라도 본래 품사를 유지한다. 접미사인 ‘아’가 어미인가를 구별할 때는 문장 안에서 서술성이 있는가(=절을 이루는가)를 보도록 한다.

- ① 나바호인은 기억력이 좋아서 기념일에 선물을 잘 챙긴다.
- ② 나바호인은 지금 여기만이 실재한다는 인식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 ③ 나바호인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마을 구획정리 사업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 ④ 나바호인은 기마민족으로 말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말을 최상의 선물로 간주한다.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긍정 발문

★ 정답 해설:

첫째 문단에 따르면 나바호 인디언은 시간이 공간과 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만이 실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바호인은 미래를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이유로 둘째 문단에서 나바호인은 장래의 이익에 대한 약속은 고려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에 비춰볼 때 투자 가치가 있는 마을 구획정리 사업 역시 장래의 이익과 관련한 것으로, 나바호인은 이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오답 해설:

① 다음 글에 나바호인이 기억력이 좋다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추론이 아니다.

② 첫째 문단에 따르면 나바호 인디언에게 시간은 공간과 같기에 지금 여기만이 실재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나바호인은 미래를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나바호인은 장래 이익에 대해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장래의 이익과는 별개인 사람과의 약속까지 지키지 않을지는 해당 글을 통해서도 추론할 수 없다.

④ 둘째 문단에 나바호인이 말을 사랑하고 경마로 내기하기를 즐긴다고 제시되어 있지만 나바호인이 기마민족인지, 말을 최상의 선물로 간주하는지는 제시된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문 3.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애리조나주 북부의 나바호 인디언과 유럽계 미국인은 오랜 세월
에 걸쳐 서로의 시간 개념을 적응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나바호인
에게 시간은 공간과 같다. 즉 지금 여기만이 실재하며 미래라는 것
은 현실감을 거의 주지 못한다. 나바호 마을에서 성장한 나의 옛
친구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바호인은 말[馬]을 사랑하고 경마로 내기하
기를 즐기. 그런데 만약 나바호인에게 ‘자네 지난 독립기념일에
플래그스테프에서 경주를 온통 휩쓸었던 내 말을 기억하지?’ 하고
물었을 때, ‘그럼, 기억하고말고.’ 하면서 그 말을 아주 잘 알고 있
다는 듯이 끄덕인다 해도 그에게 다시, ‘그 말을 다음 가을에 자네
에게 주겠네.’ 하고 말하면 그는 낙담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가 버릴
것인데. 그러나 만약 ‘내가 방금 타고 온 저 비루먹은 말 알지? 영
양실조대다 안쨍다리인 저 늙은 말을 해진 안장과 함께 자네에게
줄게. 저놈을 타고 가게나.’ 하고 말하면, 그 나바호인은 희색이 만
면하여 악수를 청한 다음 자신의 새 말에 올라타서 사라질 것인데.
나바호인은 눈앞에 보이는 선물만을 실감할 뿐, 장래의 이익에 대
한 약속은 고려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문 4.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지금 뭐 하니?”라는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이가 컴퓨터로 학교 숙제를 하고 있다면
엄마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면
질책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면 엄마의 말은 더 다
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엄마도 컴퓨터를 좀 쓰
자는 제안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심부름을 해 달라는 요청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밥을 먹으러 나오
라는 명령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일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른
의미의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십상이다.

- ① 같은 의미라도 어감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
- ② 같은 말이라도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
- ③ 같은 발화라도 상황에 따라 기능이 다를 수 있다.
- ④ 발화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문자 텍스트 그 자체를 우선
시해야 한다.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내용 일치 긍정 발문

★ 정답 해설:

제시된 글은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우리가 주고 받는 말은 일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오답 해설:

- ① 제시된 글에서는 같은 의미인데 어감의 차이가 나는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제시된 글은 “지금 뭐 하니?”의 예를 통해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 다른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 ② 제시된 글의 “지금 뭐 하니?”는 같은 말이라도 역량이 아닌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제시된 글에 따르면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일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문자 텍스트 그 자체를 우선한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문 5. ㉠ ~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경음화는 장음 중 평음이 일정한 환경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경음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는 경음으로 발음된다.
-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연결되는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 한자어에서 ‘ㄹ’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ㅊ’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	㉡	㉢	㉣
① 먹고	껴안더라	어찌할 바	결석
② 놓습니다	삶더라	열 군데	절정
③ 받고	앓더라	발전	물동이
④ 잡고	담고	갈 곳	하늘소

★ 정답: ① - 어문규정 - 표준 발음법 - 원소리되기

★ 정답 해설:

- ㉠ 먹고(0): ‘먹고’는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ㅊ’은 원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3항에 의해 [먹꼬]로 발음한다.
- ㉡ 끼안더라(0): ‘어간 받침 ㄴ(ㄴ,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ㅊ’은 원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4항에 의해 [껴안따라]로 발음한다. 비음 ‘ㄴ’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이 경음으로 발음되었다.
- ㉢ 어찌할 바(0): ‘어찌할 바’는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ㅊ’은 원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7항에 의해 [어찌할빠]로 발음한다. 관형사형 ‘-ㄹ’ 뒤에 연결되는 평음 ‘ㅂ’이 경음으로 발음되었다.
- ㉣ 결석(0)[결썩]: ‘결썩’은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로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ㅊ’은 원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6항에 따라 [결썩]으로 발음한다.

缺 이지러질 결 席 자리 석 / 結 맺을 결 石 돌 석

★ 오답 해설:

- ㉡ 놓습니다(X): ‘놓습니다’는 “ㅎ(ㄴ, ㄷ)”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12항과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ㄴ), ㄷ(ㄴ,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ㄴ), ㅂ(ㅁ, ㅂ, ㅅ, ㅈ, ㅊ, ㅌ, ㄴ)’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18항에 따라 [노습니다]로 발음한다.
- ㉢ 삶더라(0): ‘어간 받침 ㄴ(ㄴ,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ㅊ’은 원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4항에 의해 [삼따라]로 발음한다.
- ㉣ 열 군데(X): ‘열 군데’에서 ‘열’은 관형사형 어미가 아닌 수 관형사 ‘열’이므로 ㉣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열:군데]로 발음한다.
- ㉣ 절정(0): ‘절정(絶頂)’은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로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ㅊ’은 원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6항에 따라 [절썩]으로 발음한다.
- ㉢ 받고(0): ‘받고’는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ㄴ), ㄷ(ㄴ,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ㅊ’은 원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3항에 의해 [반꼬]로 발음한다.
- ㉣ 앓더라(0): ‘앓더라’는 ‘어간 받침 ㄴ(ㄴ,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ㅊ’은 원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4항에 의해 [안따라]로 발음한다.
- ㉣ 발전(X): ‘발전(發展)’은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로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ㅊ’은 원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6항에 따라 [발썩]으로 발음한다.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 예에 해당한다.
- ㉣ 물동이(X):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적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ㅌ, ㅊ’을 원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8항에 따라 [물똥이]로 발음한다. ‘물동이’는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가 아니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잡고(0): ‘잡고’는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ㄴ), ㄷ(ㄴ,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ㅊ’은 원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3항에 의해 [잡꼬]로 발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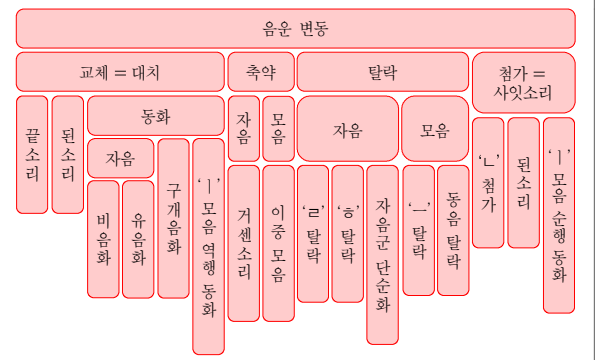
* 잡고[잡고]: 雜 섞일 잡 攵 생각할 고/살필 고

- ㉣ 담고(0): ‘담고’는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ㄴ), ㄷ(ㄴ,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ㅊ’은 원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3항에 의해 [담꼬]로 발음한다.

- ㉣ 갈 곳(0): ‘갈 곳’은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ㅊ’은 원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7항에 의해 [갈꼐]로 발음한다.

- ㉣ 하늘소(X):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적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ㅌ, ㅊ’을 원소리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8항에 따라 [하늘쏘]로 발음한다. ‘하늘소’는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가 아니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음운의 변동 현상(우월한 문법·규정 p. 38)



문 6.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 내에 역에 도착하려면 가능한 빨리 달려야 합니다.
- ② 그는 그들에 뒤지지 않는 근력을 길렀기에 메달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 ③ 자율 학습 시간을 줄이는 대신 보충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 ④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는 논평이 계속 이어지면서 발표 대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 정답: ③ - 이론 문법 - 통사론 - 올바른 문장

★ 정답 해설:

‘수나 분량을 본디보다 적게 하다.’는 뜻을 갖는 ‘줄이다’의 반의어인 ‘늘리다’는 ‘수나 분량, 시간 따위를 본디보다 많아지게 하다.’는 뜻을 갖는 동사이다. 흔히 ‘늘이다’와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많으나 ‘늘이다’는 주로 ‘고무줄을 늘이다’와 같이 ‘본디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참고) 한글 맞춤법 제57항(우월한 문법·규정 p. 191)

느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늘이다	고무줄을 늘인다.
늘리다	수출량을 더 늘린다.		

참고) 필수 혼동 어휘(우월한 어휘·한자 p. 120)

느리다	움직임이나 일을 해내는 속도가 더디다.
늘리다	㉠ 본디보다 부피를 크게 하거나 수를 늘린다.
늘이다	㉡ ①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 ② 아래로 처지게 하다.

★ 오답 해설:

① ⇨ 시간 내에 역에 도착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달려야 합니다.
‘가능한’은 용언(형용사) ‘가능하다’의 관형형으로, 그 뒤에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 ‘한’이 와서 수식을 받아 ‘가능한 조건하에서’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와 같이 부사가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 올바른 표현(우월한 문법·규정 p. 300)

(29) 일단 개봉 후에는 가능한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 가능한 한)
[해설] ‘가능한 일’에서처럼 ‘가능한’은 용언의 관형형으로 그 뒤에 명사가 이어진다. 반면에 ‘가능한 한’은 ‘가능한 조건하에서’라는 의미로 그 뒤에 부사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와야 한다.

② ⇨ 그는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 근력을 길렀기에 메달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제시된 ‘뒤지다’는 능력, 수준 따위가 남보다 뒤떨어지거나 못하다는 뜻의 동사이며 부사어로 【...에게】를 필요로 한다. 이때 부사격 조사 ‘에게’는 사람, 동물과 같은 유정 명사에, 부사격 조사 ‘에’는 무정 명사에 쓰인다. 따라서 사람을 뜻하는 대명사 ‘그들’에는 부사격 조사 ‘에게’를 써야 한다.

참고) 올바른 표현(우월한 문법·규정 p. 311)

(6) 재해 지역 선포를 대통령에 요청했다. (⇨ 대통령에게)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중국 정부에게 항의하였다. (⇨ 중국 정부에)
[해설] ‘에게’는 사람, 동물과 같은 유정 명사에, ‘에’는 무정 명사에 쓰인다.

④ ⇨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는 논평이 계속 이어지면서 발표 대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보조 용언 ‘아니하다(않다)’는 앞에 오는 본용언의 품사를 따라가는 보조 용언이다. 그런데 본용언 자리에 서술격 조사와 결합한 체언이 온 경우에는 형용사와 활용 형태가 동일하므로, ‘효과적이지 않은’으로 적어야 한다. 형용사나 명사 구문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와 결합할 때 ‘-는’이 아니라 ‘-(으)ㄴ’과 결합한다.

문 7. 밑줄 친 ‘가토리’와 ‘都沙工’의 상황을 표현한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되헤 매게 쫓친 가토리 안과,
大川 바다 한가운데 一千石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닛도 일코 농총도 근코 뒛대도 짓고 치도 싸지고 바람 부러 물결 치고 안개 뒤섯게 즈자진 날에 갈 길은 千里萬里 나쁜의 四面이 거머어득 저못 天地寂寞 가치노을 전논의 水賊 만난 都沙工의 안과,
엇그제 님 여원 내 안히야 엇다가 ㄱ을ㅎ리오.

- ① 孤子單身
- ② 螳螂拒轍
- ③ 磨杵作針
- ④ 百尺竿頭

★ 정답: ④ - 어휘 - 한자 성어

★ 정답 해설:

매에게 쫓기고 있는 까투리와 파선 직전의 절망적 상황에 처한 도사공은 현재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백척간두(百尺竿頭)’가 적절하다.

百尺竿頭(백척간두):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

百 일백 백尺 자 척 竿 장대 간 頭 머리 두

★ 오답 해설:

① 孤子單身(고혈단신): 피붙이가 전혀 없는 외로운 몸.

孤 외로울 고 子 외로울 혈 單 홀 단 身 몸 신

② 螳螂拒轍(당랑거철):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제나라 장공(莊公)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멈추려 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螳 사마귀 당 螂 사마귀 랑 拒 막을 거 轍 바퀴자국 철

③ 磨杵作針(마저작침): 쇠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磨 갈 마 杵 공이 저 作 지을 작 針 바늘 침

★ 작품 해설: 사설시조,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현대어 풀이]

나무도 돌도 전혀 없는 산에 매한데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 바다 한가운데 일 천 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닛도 잃고, 농총(뚝대의 줄)도 끊어지고, 뚝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치고, 안개 뒤섞여 찾아진 날에 갈 길은 천 리 만 리 남았는데 사면은 겹여 어둑하고, 천지 적막 사나운 파도 치는데 해적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엇그제 임 여원 내 마음이야 어디에다 비교하리오?

• 주제: 임을 여원 절망적 슬픔

• 해제: 사랑하는 임을 여원 후, 안다깎고 절망적 심정을 감출 길 없는 것을 매에게 쫓기고 있는 까투리와 파선 직전의 절박한 상황 속의 도사공의 마음이다가 비유하여, 그 마음보다 화자의 마음이 더하다는 것으로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까투리와 도사공의 상황 또한 시련의 극치요,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화자의 처지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과장을 통한 강조의 효과를 얻어낸 작품이다.

문 8.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태권도에서 만큼은 발군의 실력을 낼 거야.
- ② 일이 오늘부터는 잘돼야 할텐데.
- ③ 용수야, 5년만인데 한잔해야지.
- ④ 이끄는 대로 따라갈밖에.

★ 정답: ④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 정답 해설:

- 관형절 뒤에서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를 뜻하는 의존 명사 '대로'는 '이끄는 대로'와 같이 앞에 오는 관형절과 띄어 써야 한다.
-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가다.', '남의 행동이나 명령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 등을 뜻하는 동사 '따라가다'는 사전에 합성 등재되었으므로 '따라갈'과 같이 붙여 쓰는 것이 맞다.
- 해할 자리에 쓰여, 'ㄹ 수밖'에 다른 수가 없다'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ㄹ밖에'는 앞에 오는 어간 '따라갈'과 붙여 써야 한다.

참고) 띄어쓰기에 주의해야 하는 조사(우월한 문법·규정 p. 172)

대로	보조사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의존 명사	예상했던 대로 시험 문제는 까다로웠다.
밖에	보조사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조사+ 조사	집 밖에 나가 있어라.

★ 오답 해설:

- ① ⇨ 태권도에서만큼은 발군의 실력을 낸 거야.
-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라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거나 조사가 어미 뒤에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조사 '에서', '만큼', '은'은 모두 '태권도에서만큼은'과 같이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관형절 '발군의 실력을 낸'의 수식을 받는,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 '거'에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이 붙은 '거야'는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다.
- ② ⇨ 일이 오늘부터는 잘돼야 할 텐데.
-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를 뜻하는 동사 '잘되다'는 합성 등재되었다. 따라서 동사 '잘되다'의 어간 '잘되-'에 어미 'ㄹ-어'가 붙어 준 형태인 '잘돼야'는 맞게 쓴 표현이다.
 - '예정'이나 '추측', '의지'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터'에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이 붙은 '터인데'의 준 형태인 '텐데'는 '할 텐데'와 같이 앞에 오는 관형절 '잘돼야 할'과 띄어 써야 한다.

참고) 부정 표현의 띄어쓰기(우월한 문법·규정 p. 181)

잘되다 ㉠	1.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	잘√되다
	2. 사람이 훌륭하게 되다.	㉠ 이 기계는 파손이 잘√된다.
	3.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른다.	
	4. (반어적으로) 결과가 좋지 아니하게 되다.	
㉠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가 잘되었다. 부모님들은 늘 자식 잘되기를 바란다. 우리 중 잘되어야 두 명만이 합격할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에 떨어졌다고 하자 사촌 오빠는 잘됐다며 악을 웃었다.		

참고) 어미와 형태가 같은 의존 명사(우월한 문법·규정 p. 173)

텐데 데	의존 명사	날이 맑아야 할 텐데. (= ~ㄴㄹ 터인데) 은혜를 갚을 테다. (= ~ㄴㄹ 터이다)
---------	-------	--

- ③ ⇨ 용수야, 5년 만인데 한잔해야지.
- 해를 세는 단위 의존 명사인 '년'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앞에 아라비아 숫자가 오는 경우에는 '5년'과 같이 붙여 쓸 수도 있다.
 -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만'은 '5년 만인데'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 '간단하게 한 차례 차나 술 따위를 마시다.'를 뜻하는 동사 '한잔하다'가 사전에 등재되었으므로 '한잔해야지'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은 맞는 표현이다.

참고) 띄어쓰기에 주의해야 하는 조사(우월한 문법·규정 p. 172)

만	보조사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의존 명사	그는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시간의 경과) 그가 화를 낸 만도 하다.

참고) 2014년 개정 사항(우월한 문법·규정 p. 253)

한잔하다	문형 정보 수정(자동사 ⇨ 자동사/타동사 모두 가능) (...을) ※ 자동사로만 등재되었으나 타동사 용법도 등재되어 타동사로 사용될 경우에도 '한잔하다'로 붙여 쓴다.
------	---

문 9.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침이면 얼굴이 부어서 늘 고생이다. (→ 붓다)
- ② 개울물이 불어서 징검다리가 안 보인다. (→ 불다)
- ③ 은행에 부은 적금만도 벌써 천만 원이다. (→ 붓다)
- ④ 물속에 오래 있었더니 손과 발이 퉁퉁 불었다. (→ 붓다)

★ 정답: ② 어휘 - 혼동 어휘

★ 정답 해설: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의 뜻을 지닌 단어의 기본형은 '붓다'가 아닌 '불다'이다.

㉠ 개울물이 불다. / 체중이 불다.

★ 오답 해설:

- ①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의 기본형은 '붓다⁰¹'이다.
- ㉠ 얼굴이 붓다. / 병으로 간이 붓다. / 울어서 눈이 붓다.
- ③ '불입금, 이자, 갚돈 따위를 일정한 기간마다 내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의 기본형은 '붓다⁰²'이다.
- ㉠ 은행에 적금을 붓다.
- ④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의 뜻을 지닌 단어의 기본형은 '불다'이다.
- ㉠ 콩이 불다. / 북어포가 물에 불어 부드러워지다.

문 10. 밑줄 친 단어의 맞춤법이 옳은 것은?

- ① 그대와 추억이 있으매 저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 ② 신제품을 선했어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 ③ 생각지 못한 일이 자꾸 생기니 그때의 상황이 참 야속 터군요.
- ④ 그 발가숭이 몸뚱이가 위로 번쩍 쳐들렀다가 물속에 텀뽕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 정답: ①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정답 해설:

'있다'의 어간 '있-'에 어떤 일에 대한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매'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있으매'라 쓰는 것은 맞는 표현이다. 흔히 '-으매'와 발음이 비슷한 '-음에'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에'와 '에'의 발음을 분간하지 못하고 부사격 조사 '에'도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있음에'는 어간 '있-'에 어미 '-음', 조사 '에'가 붙은 형태로, '돈이 있고 없음에 연연하지 마라.'와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② ⇨ 신제품을 선했어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 '물건의 좋고 나쁨을 가려보이다.'는 뜻의 동사 '선편이다'의 어간 '선편이-'와 어미 '-었-',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도'가 결합한 '선편이어도'의 준 형태는 '선편어도'라 써야 한다.
- ③ ⇨ 생각지 못한 일이 자꾸 생기니 그때의 상황이 참 야속터군요.
- 한글 맞춤법 제40항에 따르면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따라서 '야속하다'는 '야속다'로 줄여 쓸 수 있다. '야속다'의 어간 '야속-'에 종결 어미 '-터군'과 보조사 '요'가 붙은 형태이므로 '야속터군요'와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 그 발가슴이 몸뚱이가 위로 번쩍 쳐들었다가 물속에 텅텅 쳐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우 세게 박히다.’, ‘마구 쑤셔 넣이지거나 폭 밀어 넣이지다.’ 등을 뜻하는, ‘쳐박다’의 피동사는 ‘쳐박히다’라 써야 한다. ‘마구’, ‘많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쳐-’를 활용한 형태이다. ‘치어’의 준 형태인 ‘쳐’를 쓸 이유가 없다.

앞 절에 ‘위로 번쩍’의 수식을 받는, ‘위로 들러 올려지다.’는 뜻의 동사 ‘쳐들리다(치어-들리다)’와 문맥적 의미를 비교하여 알 수 있다.

참고) 추가 혼동 어휘(우월한 어휘·한자 p. 142)

쳐-	‘마구, 많이, 천격스럽게, 함부로’ 등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 예) <u>쳐박다</u> , <u>쳐바라다</u> , <u>쳐쟁이다</u> , <u>쳐먹다</u> .
쳐-	‘치어’의 준말 예) <u>쳐다보다</u> , <u>쳐들다</u> , <u>쳐버리다</u> , <u>쳐부수다</u> , <u>쳐주다</u>

문 11.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자: _____
작가: 내가 작품을 쓰면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를 살려 놓아야 독자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소설이 아무리 허구적 장르라 해도 사실성에 근거해야 비로소 생동감과 개연성을 확보하기에 습작 시절부터 취재를 우선시켰지요. 전집에 실린 「○○기행」, 「○○를 찾아서」 같은 단편들도 거의 취재를 통해서 얻어 낸 자료를 가지고 쓴 작품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 리얼리티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작품이 힘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것은 분명 작가 수업에도 보탬이 됐고 공감을 얻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봐요.

- ① 선생님은 작품을 쓰면서 언제부터 취재를 하시는지요?
- ② 선생님의 이번 신작에서 리얼리티가 강조된 이유는 무엇이었지요?
- ③ 선생님의 작품 중 독자들의 공감을 얻은 작품은 어떤 것들이었지요?
- ④ 선생님이 작품 활동에서 취재에 주력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빈칸 추론

★ 정답 해설:

작가는 제시된 글에서 자신이 작품을 쓰면서 취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취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통해 리얼리티를 살려 공감대를 넓히고 사실에 근거하여 생동감과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이러한 답변을 이끌어낼 기자의 질문으로는 ‘작가가 작품 활동에서 취재에 주력하는 이유를 묻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① 작가의 답변은 취재가 작품 활동에 어느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지 밝힐 뿐 언제부터 취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작가는 취재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므로 작품 전반에 리얼리티를 살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신작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 ③ 작가는 취재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므로 작품의 리얼리티를 담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독자들의 공감을 얻는 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을 뿐, 특정 작품을 지목하고 있지 않다.

문 12.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은 일곱 자의 몸뚱이를 지니고 있지만 마음과 이치를 제하고 나면 귀하다 할 만한 것은 없다. 온통 한 껍데기의 피괴롭이 큰 뼈 덩어리를 감싸고 있을 뿐이다.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 옷을 입을 줄도 알고 음탕한 욕심을 채울 줄도 안다. 가난하고 천하게 살면서 부귀를 사모하고, 부귀하게 지내면서 권세를 탐한다. 성년 때는 싸우고 근심이 생기면 슬퍼한다. 궁하게 되면 못 하는 것이 없고, 즐거우면 음란해진다. 무릇 백 가지 하는 바가 한결같이 본능에 따르니, 늙어 죽은 뒤에야 그만둘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를 짐승이라 말하여도 괜찮을 것이다.

- ①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에게 본능적이다.
- ② 마음으로 본능을 다스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 ③ 빈부 격차는 인간 삶의 지향성에 영향을 준다.
- ④ 근심과 슬픔은 늙기 전까지 끊이지 않는다.

★ 정답: ② - 독해(비문학) - 주제

★ 정답 해설:

제시된 글은 사람에게 ‘마음과 이치’를 제하면 귀한 것이 없고, 본능에 따르면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본능’에만 따르지 말고 ‘마음과 이치’를 귀하게 여겨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글의 주장으로 ‘마음으로 본능을 다스리는 삶에 자세가 필요하다’가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① 글쓴이는 사람은 마음과 이치를 제하면 귀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반면 사람의 본능은 사람을 짐승과 다를 바 없이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제시된 글의 ‘가난하고 천하게 살면서 부귀를 사모하고, 부귀하게 지내면서 권세를 탐한다’라는 부분을 통해 ‘빈부’가 ‘인간 삶의 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삶의 지향성은 본능에 따른 것이므로 글쓴이가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들이니 글쓴이의 주장으로 볼 수 없다.
- ④ 제시된 글에 ‘무릇 백 가지 하는 바가 한결같이 본능에 따르니, 늙어 죽은 뒤에야 그만둘 따름이다’라는 부분이 있으나 그렇다면 이를 ‘짐승’이라 비판하는 것이 글쓴이이므로 이를 글쓴이의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문 13.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대의 체험은 40대의 체험을 못 따르고, 40대의 체험은 70대의 체험을 못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자(莊子)도 소년(少年)은 대년(大年)을 못 따른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이 장수를 한들 몇백 년을 살 것인가. 수백 년 수천 년의 체험은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것이니,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독서가 문제인 것이다.

책이 너무 많아 일생을 읽어도 부족하다고 걱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 눈을 꼭 한번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서적이란 열 손가락을 넘지 아니할 것이다. 박학다식이니 박람강기니 하여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글 쓰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다. 잡박한 지식의 무질서한 기억은 우리의 총명을 혼미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① 널리 알고 많이 기억하는 것이 글쓰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 ② 70대의 독서가 20대의 독서보다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된다.
- ③ 인간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독서가 중요하다.
- ④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를 해야 한다.

★ 정답: ㉔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부정 발문

★ 정답 해설:

70대가 20대보다 우월한 것은 '독서'가 아니라 '체험'이다. 그래서 첫째 문단에서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독서가 문제'라고 한 것이다. '잡박한 지식의 무질서한 기억'은 오히려 글을 쓰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70대의 독서가 20대의 독서보다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

★ 오답 해설:

- ① 둘째 문단의 '넌리 알고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글 쓰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글쓴이는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의 체험은 오직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글쓴이는 '인간의 체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독서가 중요하다'고 본다.
- ④ 글쓴이는 '내 눈을 꼭 한번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서적'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아무 책이나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읽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문 14. ㉔ ~ ㉞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㉔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을지?"

㉕ "개수작 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푹푹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꼭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㉖ "이래 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철축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 윤홍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

<보기>

- ㄱ. ㉔: '나'가 '그'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다.
- ㄴ. ㉕: '나'의 말을 '그'가 곧이듣지 않으려고 한다.
- ㄷ. ㉖: '그'가 '나'보다 학력 면에서 우월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정답: ㉔ -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ㄱ, ㄴ: ㉔에서 '나'는 '그'에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을 수 있다고 말하며 희망을 주려고 한다. 그러나 ㉕에서 '그'는 '나'의 말을 '개수작'이라고 표현하며 곧이듣지 않으려고 한다.

★ 작품 해설: 윤홍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주제: 산업화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비극적 삶
- 해제: 윤홍길의 작품은 어린 시절 6·25 전쟁의 경험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한 작품과 현실 사회의 모순을 풍자, 고발한 작품으로 구분되는데, 이 작품은 후자에 속한다. 작품의 배경인 1970년대는 산업화, 근대화 시대로 불릴 정도로 다방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그 여파로 비인간적, 비윤리적 현상도 나타났고, 이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 작품의 주인공 권씨는 바로 이런 인간의 전형이다. 오로지 지식인이라는 자존심으로 어렵게 살아가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다 졸지에 전과자가 되어 버린 권씨야말로 시대적 현실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반성적 태도이다. 초등학교 선생인 '나'는 권씨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 받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연민의 마음만을 간직하는 소극적 지식인이다. 작가는 '나'를 통해 시대의 비극적 현실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 구성:

[발단] 권씨 가족이 '나'의 집 문간방에 세를 얻어 들어옴.

[전개] 생활 능력이 부족한 전과자이지만, 구두에 대한 권씨의 정성이 지극함.

[위기] 해산에 필요한 병원비를 빌려 달라는 권씨의 청을 거절하지만, '나'는 결국 권씨 모르게 병원비를 냄.

[절정] 권씨가 '나'의 집에 강도로 들어왔다가, 자존심만 상한 채 나감.

[결말] 권씨가 아홉 켤레의 구두만 남기고 사라짐.

• 교재 수록 부분 - [전개]

- ① 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는 권씨
- ② 투쟁의 현장이 집 근처였음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는 권씨
- ③ 투쟁 현장에서 생존 욕구를 발견하는 권씨
- ④ 과거에 투쟁에 참여하여 전과자가 된 이유를 '나'에게 말하는 권씨
- ⑤ '나'에게 앞날을 장담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권씨
- ⑥ 그날 밤 '나'는 권씨와 관련된 이상한 꿈을 꿈.

★ 오답 해설:

ㄷ. "이래 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라는 '그'의 말은 '나'에게 학력 면에서 우월함을 자랑하려는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니다.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에게 '나'가 대문의 위치를 알려주자 문간방에 사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존심이 상해서 한 말이다.

또한, 제시된 부분에서 '나'의 학력을 알 수 없으므로 '그'가 '나'보다 학력 면에서 우월한지도 알 수 없다.

문 15. 다음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양에는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명암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새삼 흥미롭게 다가온다. 단원 김홍도의 「씨름」을 보자. 어디에도 그림자는 없다. 숨바꼭질 하는 아이들이 꼭꼭 숨어 버린 것처럼 모든 그림자가 다 사라져 버렸다. 이처럼 선묘에 의지해 대상을 나타내는 우리의 전통 회화에서는 그림자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동양 회화는 명암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빛과 그림자를 통해 그림의 사실성을 높이고 사물의 물리적인 실재감을 높이는 것은 선의 맛을 중시하여 정신성을 극대화해 온 동양 회화의 전통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상의 원리로서 음양의 조화를 추구해 온 역사가 시사하듯 물리적인 빛과 그림자를 그리지는 않았어도 그 조화와 원리에 대한 관념은 화포에 진하게 물들어 있다. 사실의 묘사보다 정신의 표현을 중시한 까닭에 동양 회화에서 빛과 그림자는 이처럼 정신의 현상으로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에도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명암 표현이 어렵듯이 시도되는데, 이는 북경으로부터 명암법, 원근법 등에 기초한 서양 화법이 우리나라로 흘러들어 왔기 때문이다. 김두량의 「견도(犬圖)」, 이회영의 「견도(犬圖)」 등 일부 화인들의 그림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 ① 선의 맛을 중시한 전통 때문에 동양 회화에서는 명암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
- ② 김홍도의 「씨름」과 김두량의 「견도」는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③ 회화에서 명암은 사물의 실재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④ 동양 회화는 정신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거리를 두었다.

★ 정답: ②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부정 발문

★ 정답 해설:

둘째 문단에서는 김홍도의 「씨름」에는 그림자가 없다며 명암법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반면 넷째 문단에서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명암 표현이 어렵듯이 시도되었다'며 김두량의 「견도」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 작품은 다른 명암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자는 명암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후자는 사용한 것이다.

★ 오답 해설:

- ① 둘째 문단의 '우리의 전통 회화에서는 그림자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빛과 그림자를 통해 그림의 사실성을 높이고 사물의 물리적인 실재감을 높이는 것은 선의 맛을 중시하여 정신성을 극대화해 온 동양 회화의 전통'이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둘째 문단의 '빛과 그림자를 통해 그림의 사실성을 높이고 사물의 물리적인 실재감을 높이는 것'을 통해 회화에서 명암은 사물의 실재감을 높임을 알 수 있다.
- ④ 동양 회화의 전통은 '선의 맛을 중시하여 정신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명암을 사용해 사실성과 실재감을 높이는 것은 이러한 전통과 배치되기 때문에 동양 회화는 사실성과 거리를 두었다.

문 16. 다음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조선국 건양 원년 자주독립 기뻐하세.
천지간에 사람 되어 진중보국 제일이니,
임금께 충성하고 정부를 보호하세.
인민들을 사랑하고 나라기를 높이 다세.
나라 도를 생각으로 시종어일 동심하세.
부녀 경대 자식 교육 사람마다 할 것이라.
집을 각기 흥하려면 나라 먼저 보전하세.
우리나라 보전하기 자나 깨나 생각하세.
나라 위해 죽는 죽음 영광이지 원한 없네.
국태평 가안락은 사농공상 힘을 쓰세.
우리나라 흥하기를 비나이다 하나님께.
문명개화 열린 세상 말과 일과 같게 하세.

- ① 여성을 존중할 것을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있군.
- ② 위급한 나라의 형세를 구체화하면서 언행일치를 요구하고 있군.
- ③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하고 있군.
- ④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서구적 가치관이 범람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군.

★ 정답: ① -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이 작품은 최돈성의 <애국가>이다. 부녀자를 공경하여 절대하라는 뜻의 '부녀 경대'라는 표현을 통해, '여성을 존중할 것을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있군.'이라는 독자의 반응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작품 해설: 최돈성, <애국가>

• 해제: 이 작품은 독립에 대한 의지와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 개화기의 조선은 대내외적으로 혼란한 시기로, 안으로는 계층 간·신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밖으로는 열강의 침략이 거셌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조선은 1896년 자주독립의 의지를 표방하기 위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하고, '건양(建陽)'이라는 자주적 연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주독립의 가치 아래 임금에게 충성하고 정부를 보호하며, 부녀자를 공경하여 절대하고 자식의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애국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갈래: 개화 가사
- 성격: 교훈적, 계몽적, 민족적
- 제재: 애국
- 주제: 자주독립에 대한 의지와 애국심 고취
- 특징: ① 4음보, 4·4조 ② 유교적 의식이 반영됨.
- 출전: 《독립신문》(1896)

참고) 개화 가사

개화 가사는 전통 시가의 형식에 개화기의 새로운 사상을 담은 시가이다. 10행 내외의 짧은 형식으로 4·4조 혹은 3·4조의 율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애국 계몽 운동, 자주독립, 부국강병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철영의 <애국가>, 이필균의 <애국하는 노래>, 신태석의 <신의관 창가의> 등이 개화 가사의 예이다. 문학사적으로 개화 가사는 가사와 창가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다.

★ 오답 해설:

- ② '말과 일과 같게 하세.'라며 언행일치를 요구하고는 있으나 위급한 나라의 형세를 나타내는 표현은 찾을 수 없다.
- ③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 모든 국민이 노력하자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 남을 부러워하지 말자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④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고, 서구적 가치관이 범람하는 상황도 나타나 있지 않다.

문 17.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팰렘시스트(palimpsest)란 원래 양피지 위에 글자가 여러 겹 겹쳐서 보이는 것을 일컫는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양피지에 글을 썼는데 양피지는 귀했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미 쓰여 있는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글자를 쓰는 일이 빈번했다. 이로 인해 이전에 쓴 글자 위로 새로 쓴 글자가 중첩되어 보이는 현상이 벌어졌다. 건축에서는 이러한 팰렘시스트를 오래된 역사적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다.

가장 손쉬운 예로 서울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을 들 수 있다. 조선 시대 한양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부재하였다. 하지만 물은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본 요건인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당시 주거들은 한강의 지류 하천을 따라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실개천 주변으로 주거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 옆으로 사람과 말들이 지나다니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수변(水邊)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하천을 상하수도 시설처럼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동시에 자동차가 급증하여 자동차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도시 형성의 필수 조건으로 부각되면서 하천 주변은 상당 부분 자동차 도로로 바뀌었다. 강북의 도로망 가운데 많은 부분이 구불구불한 자연 하천과도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산업화 이후 대형 간선도로의 등장이 본격화되면서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 커뮤니티는 간선도로에 의해 나뉘지게 된 것이다.

- ① 팰렘시스트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 양피지를 재활용하면서 빚어진 현상을 말한다.
- ② 하천이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간선 도로가 커뮤니티를 나누고 있다.
- ③ 도시 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하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된 것은 필연적이다.
- ④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던 시절의 흔적이 현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친 팰렘시스트의 예이다.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 정답 해설: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로 변한 것은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위생 문제가 불거지고 동시에 자동차가 급증해 자동차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도시 형성의 필수 조건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도시 주거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상하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 자동차 도로가 되었다고 하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① 첫째 문단에 따르면 팰렘시스트의 의미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 양피지에 글씨를 쓸 때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미 쓰여 있는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글자를 쓰게 되면서 글자가 중첩돼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②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대형 간선도로의 등장이 본격화되면서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 커뮤니티는 간선도로에 의해 나뉘지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④ 첫째 문단에서 건축에서의 팰렘시스트는 오래된 역사적 흔적이 현재 공간의 영향을 미칠 때라고 말한다. 서울 강북의 복잡한 도로망의 경우 과거 실개천 주변에 형성된 주거와 도로가 현재 복잡한 도로망의 영향을 준 것으로 팰렘시스트의 예라고 볼 수 있다.

문 18. 다음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풀어 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 버리면

억만 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虛無)한디!' 독은 차서 무엇 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면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며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을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을 차고」 -

- ①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흐노라.
- ② 내 언제 무신(無信)하야 님을 언제 속였관디
월침삼경(月沈三更)에 온 뜻지 전혀 업다.
추풍(秋風)에 지는 님 소리야 낸들 어이허리오.
- ③ 짚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엔들 못 안즈랴.
술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돌 도다 온다.
아하야, 박주산채(薄酒山菜)ㄹ망정 업다 말고 내여라.
- ④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恨)하노라.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흥는것가.
비록에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사해 닳드니.

★ 정답: ④ -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시적 화자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며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에도 독을 차고 선선히 가겠다는 결단과 저항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백이와 숙제의 충절에 대한 비판을 통해 죽음을 각오한 굳은 절개와 지조를 노래한 성삼문 시조의 정서와 가장 유사하다.

★ 작품 해설: 김영랑, <독을 차고>

• 해제: 1930년대 말은 일제가 우리에게서 국어를 빼앗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아름다운 노래만을 부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시는 작가가 순수 서정의 세계에서 나와 현실 상황과 대결하는 자세를 시화(詩化)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의 제재인 '독(毒)'은 험난하고 궁핍한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려는 대항 의식이며 순결의 의지다. '나는 나를 노리는 식민지 현실 속에서 태어난 사실마저 저주하며 '선선히 독을 차고 가리라'라고 다짐한다. 이 원망스러운 세상에서 단지 육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산다는 일이, 맑고 평화로운 '마음'의 세계를 지향해 온 영랑으로서의 견딜 수 없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끝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현실에 맞서 저항할 것을 결의한다. 앞서서 '짐승의 밥'이 되기보다는 저항함으로써 '혼(魂)'을 건지겠다는 영랑의 결의는 그가 살았던 한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주제: 순결한 삶의 의지(식민지 현실에 대한 대결 의식)
- 성격: 의지적, 직설적, 저항적, 상징적
- 어조: 절연한 낭성적 어조
- 표현: ① 주정적 정감을 직설적으로 표출 ② 대화체를 사용

★ 오답 해설:

① 풀만 무성하게 자란 고려의 궁궐터를 돌아보고 고려의 오백 년 역사를 떠올리며 슬픔에 젖어 있음을 노래한 원천석의 시조이다.

★ 작품 해설: 원천석, <홍망이 유수하니~>

- 주제: 고려 왕조의 회고와 무상감
- 해제: 고려의 충신이었던 작자가 풀로 무성해진 고려의 궁궐터를 바라보며 지은 작품으로, 고려의 멸망에서 오는 무상감(無常感)과 애절한 정한(情恨)을 잘 드러내고 있다.
- 구성: [초장] 황폐해진 궁궐 터
[중장] 목동의 피리 소리
[종장] 회고의 정과 망국의 애상감

② 소식이 없는 임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원망의 정서를 표현한 황진이의 시조이다.

★ 작품 해설: 황진이, <내 언제 무신하야~>

- 주제: 임을 향한 애타는 그리움
- 해제: 소식이 없는 임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원망의 정서를 섬세하고 감각적인 필치로 아름답게 그려 내고 있다. 가을밤에 초조하게 임을 기다리며,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를 임의 인기적으로 착각할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여인의 정서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임이 찾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임이 찾아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 성격: 감상적
- 구성: [초장] 신의 없이 임을 속인 적이 없음.
[중장] 찾아오지 않는 임을 기다림.
[종장]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③ 자연을 즐기는 풍류를 노래한 한호의 시조이다.

★ 작품 해설: 한호, <짚방식 내지 마라~>

- 주제: 자연 속에서 느끼는 안빈낙도의 즐거움
- 해제: 이 작품은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을 그대로 즐기려는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담고 있다.
- 구성: [초장] 자연 그대로에 앉고자 함.
[중장] 자연의 일부인 달을 즐기고자 함.
[종장] 소박한 술상에 만족함.

문 19. ㉠ ~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기호를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보는 것은 언어학의 ㉠ 공리이다. 그리고 그 결합이 ㉡ 자의적이라는 점 또한 널리 알려진 ㉢ 상식이 다. 그러나 음성 상정보로 총칭되는 의성어와 의태어는 여기에서 예외로 간주되곤 한다. 즉 의성어와 의태어는 기표와 기의 사이의 ㉣ 연관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① ㉠ 共理 ② ㉡ 自意的 ③ ㉢ 常識 ④ ㉣ 緣關性

★ 정답: ③ - 어휘 - 한자

★ 정답 해설: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이라는 뜻을 지닌 한자는 상식⁰⁶(常識)이다.

常 恒상 상 識 알 식

★ 오답 해설:

① ‘일반 사람과 사회에서 두루 통하는 진리나 도리.’라는 뜻을 지닌 한자어는 ‘공리⁰³(公理)’이다.

公 公변될 공 理 다스릴 리 / 共 함께 공 理 다스릴 리

②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라는 뜻을 지닌 한자어는 ‘자의적(恣意的)’이다.

恣 방자할 자 意 뜻 의 의 과녁 적 / 自 스스로 자 意 뜻 의 의 과녁 적

④ ‘사물이나 현상이 일정한 관계를 맺는 특성이나 성질.’의 뜻을 지닌 한자어는 ‘연관성(聯關性)’이다.

聯 잇닿을 연 關 빚장 관 性 성품 성 / 緣 가선 연 關 빚장 관 性 성품 성

문 2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에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부서가 급증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들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과 미래 예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렇지만 빠른 변화와 복잡한 세계화로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결과, 기관은 컴퓨터 시스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으며, 빅데이터와 연결된 인공지능을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증폭시킨 것이 적시에 지식을 제공해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집단 지성 시스템이다. 이는 인간의 두뇌, 지식 정보 시스템 등의 개체들이 협력이나 경쟁을 통해 기존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성을 얻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집단 지성 시스템을 활용하면 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재해를 예측하고, 재해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회복하는 복원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기에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분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사 결정자들은 미래학자에게서 단순히 전망 보고서나 브리핑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과 정기적으로 장기적인 사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논의 과정이야말로 빠르고 정확한 의사 결정 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입법부에 미래위원회가 설립되고 정부 지도자 의사 결정 과정에 미래학자가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① 기관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 ② 미래학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된 의의는 미래 예측 시스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 ③ 정부와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은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미래 예측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복원 시스템을 수립하는 데 집단 지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정답: ②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부정 발문

★ 정답 해설:

미래학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된 의의는 ‘미래 예측 시스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분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의사결정자들과 장기적 사안을 논의하여 빠르고 정확한 의사 결정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 오답 해설:

① 둘째 문단의 ‘기관은 컴퓨터 시스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으며’ 부분을 통해 기관이 미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함을 알 수 있다.

③ 첫째 문단의 정부와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미래 예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둘째 문단에 제시된 집단 지성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해를 예측하고, 재해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회복하는’ 복원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